

마스크 5부제 석 달 만에 폐지...가격 인하는 언제?

공적 의무공급량 80%→60%, “7월 시장에 맡길수도”

등교 개학-여름오자 텐탈마스크 수요·가격도 경중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3월9일 이후 이어진 ‘마스크 5부제’가 석 달 만에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변동 없는 마스크 가격(1500원)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른 더위로 인해 텐탈마스크의 가격 역시 뜨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학생 마스크 구매량 확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신설과 텐탈마스크 공급 확대, 보건용 마스크 일부 수출 허용 등 새로운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KF마스크, 원가 300원 수준인데 아직도 1500원

지난 3월5일 정부가 설정한 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이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 때문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때

“KF80인데 괜찮으세요?”라는 물음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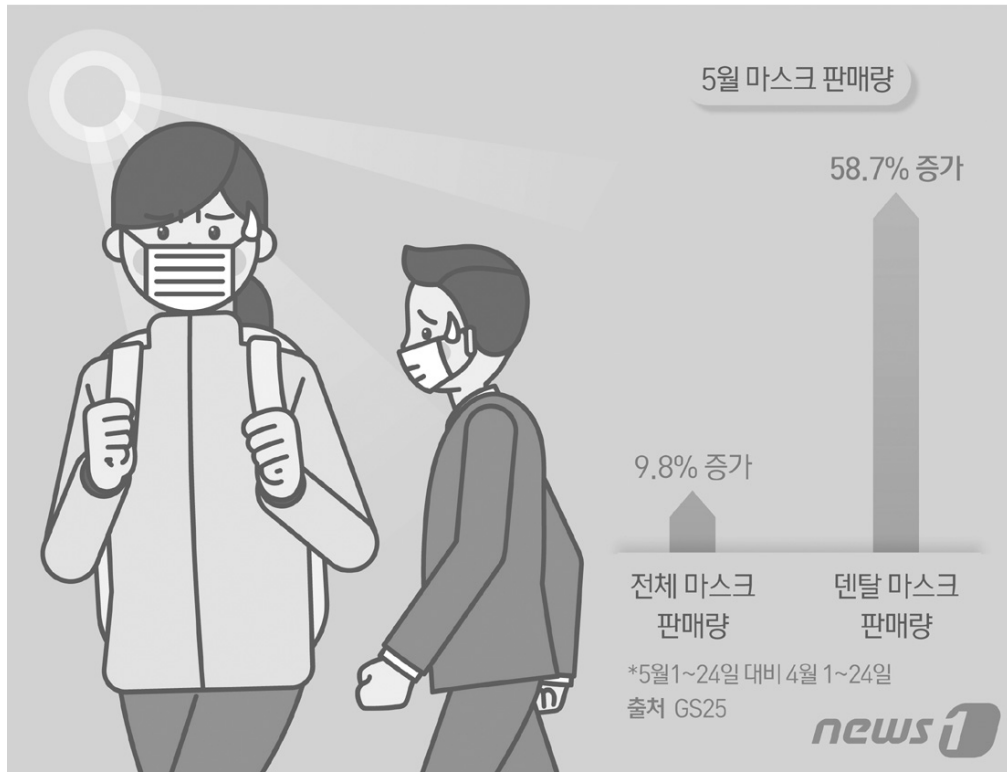
가장 보편화한 KF94 마스크의 원가는 300원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와 운송비 유통 마진 등을 더해 150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가격이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고, 안정적인 수급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마스크대란’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고, 대란 이전 KF94 마스크가 장당 700~10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인하는 의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와 마스크 업체 간 계약이) 6월 말까지다. 그 이후엔 시장에 맡길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럼 (공급이 초과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책에는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량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안이 담겨 있다. 서서히 시장에 맡겨 마스크 가격도 다시 예전처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초여름 날씨에 텐탈마스크, 대체 마스크 인기 급증...가격도 경중

지난달 말부터 부쩍 더워진 날씨, 순차적인 학생들의 등교 개학으로 얇고 통기성이 좋은 텐탈마스크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가격도 덩달아 뜨고 있다.

텐탈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보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공기가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약국에선 텐탈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중국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으면서 국내산 텐탈마스크의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초등학교, 유치원 등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아동용 소형 텐탈마스크는 더더욱 구하기 어려워졌다.

어느덧 인터넷상에는 장당 1000원짜리 판매하는 업체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마스크 생산 업계에서도 텐탈마스크를 주력으로 제조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 잡기에 나섰다. 텐탈마스크와 새롭게 신설되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50만개에서 100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국 607개 학교 ‘등교 중지’...수도권이 ‘99%’

주말 지나며 223곳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607개 학교가 1일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99%가 넘는 603개 학교가 나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를 중지하거나 연기한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서울·부산·인천·경기·경북 등 5개 시·도에서 모두 607곳이다.

쿠방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전야지인 경기 부천시 2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인접 지역인 인천에서도 부평

구가 153곳, 계양구가 89곳, 서구가 1곳 등 모두 243곳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서울에서도 102개 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다. 경기 구리에서 5곳, 경기 안양·수원 등에서도 각각 1곳이 이날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서만 603개 학교(99.3%)가 등교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금정구가 2곳, 경북 구미·경산에서 각각 1곳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267곳, 초등학교 182곳, 중학교 84곳, 고등학교 67곳, 특수학교 7곳 등이다.

등교수업을 연기한 학교는 지난달 29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국에서 830곳 나왔

던 것과 비교해 주말 사이 223곳 줄어들었다.

경기 구미와 상주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240명, 28명이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구미는 181개 학교, 상주는 4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서울에서도 29곳, 부산 1곳, 대구 1곳, 고양 5곳, 김포 2곳, 충남 천안 13곳 등이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이날 추가로 등교 중지를 결정한 학교도 나왔다. 서울에서 10곳, 부산에서 2곳, 경산에서 1곳 등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신봉우 기자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故 김상태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 김상태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80년 당시 30세였던 김상태 유공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슬하에 1남1녀를 둔 가장이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5월21일 총

성이 울리던 광주의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을 굶길 수 없어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다.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로 돌아오던 중 북구 운암동 금호고등학교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김상태 유공자는 제1묘역 1-99에 잠들어 있으며, 누구든지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묘소와 공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민주묘지관리소는 설명했다.

경찰청 ‘민식이법’ 관련 사건 78건 접수

과잉 처벌 논란에...“형평성 논란 없도록 세세히 살필 것”

경찰청이 윤전자 과잉처벌 논란이 있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모두 보고 받아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률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 적용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례를 보고 받고 수사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민식이법 관련 사건은 78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한편, 이날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 ‘나눔의집’ 수사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 98.2%

2132만 가구 13조4282억 지급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2132만 가구에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지급률은 98.2%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 오전 7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등 총 2132만 가구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 2171만 가구의 98.2%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13조4282억원이 지급됐다.

지급가구는 전날인 30일 밤 12시보다 총 1만가구가 늘어났고 액수는 7억 증가했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455만가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액

수로는 9조5747억원이다.

이러 현금 286만가구(13.2%) 1조3010억원, 선불카드 241만가구(11.1%) 1조5737억원, 상품권 150만가구(6.9%) 988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7만8745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1만9252가구, 부산 139만4717가구, 경남 141만16가구, 인천 129만63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제휴 9개 카드 회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이달 5일까지 받는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